



# NEWS LETTER

2020년 6월 8일 Vol. 373

##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5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0.5점으로 종합병원 동일종별평균 78.3보다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치료 잘하는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비율 등 10개 항목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지표에서 종합점수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7.5%(종별평균 16.8%), 응급실방문경험 환자비율 4.7%(종별평균 9.1%)로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심평원이 실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올바른 표준치료와 진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대구 금용사 혜선스님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199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 발전기금, 동국대 의과대학 학술연구진흥기금,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육성장학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온 혜선 스님(대구 금용사 주지)이 6월 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또 기탁했다. 이로써 혜선 스님이 동국대학교병원과 의과대학, 경주캠퍼스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4억 8천 2백만 원에 이른다.

혜선 스님은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오히려 기부액이 약소해 불철주야 동국대와 병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동국대학교병원이 발전하고 불교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故홍윤식 교수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불교민속학과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정립하고 발전시킨 불교문화 발전의 상징적 인물이자 동국대학교의 자랑으로 꼽혔던 故홍윤식 명예교수(한국불교민속학회장, 올해 5월 28일 별세)의 동국대 사랑은 영면에 들어서도 계속됐다.

홍 교수의 아내인 조명렬 여사는 발인 이틀 후인 6월 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홍 교수 이름으로 1천만 원의 병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조 여사는 “평소 병원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남편의 뜻에 따라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동국대 박물관장과 문화예술대학원장,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근래까지 불교민속학회, 한국전통예술학회 등의 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 노사협력, ‘코로나19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한 헌혈 캠페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고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자 감소에 따른 심각한 혈액 부족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이동 헌혈 버스를 통해 교직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헌혈증은 병원 진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사업실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지정헌혈을 통해 채혈된 혈액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